

전남육상,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서 다수 메달 획득

전남실업팀선수단 금 4·은 2·동 1개 획득 '메달 잔치'

장흥군청 김장우 세단뛰기 16m78로 대회 신기록 수립

전남육상실업팀선수단이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메달잔치를 벌였다.

전라남도육상연맹(회장 김용주)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강원도 고성(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금메달은 해머던지기 여자부 1인자인 박서진(목포시청)이 58m 06, 5000m 경보에서는 이세화(여주시청)가 23분28초80, 높이뛰기에서 김은정(여주시청)이 1m73cm, 세단뛰기 국가대표인 김장우(장흥군청)가 16m78로 대회신기록 및 개인최고기록을 수립하

며 각각 압도적인 실력차이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은메달은 나주시청 김동욱이 남자부 800m에서 1분53초47, 여주시청 정일우는 포환던지기 18m10으로 부상으로 기록이 나오지 못하며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메달은 해남군청 김현진이 여자부 10000m에서 35분35초02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남실업팀 선수단을 총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저희 전남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 매우 기쁘다"며 "이같은 성적을 올린데에는 각 실업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지역실업팀 감독 및 코치님들이



높이뛰기 여자시청 김은정

잘 지도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고 축하한다고 말을 전했다.



세단뛰기 장흥군청 김장우

이어 "이같이 좋은 성적을 거두 전남육상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해머던지기 목포시청 박서진

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순천 탑골드 70대, 제14회 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 실버부 우승



MVP 순천탑골드 70대 원영복 선수

지난 9일, 10일, 이틀간 경남 창원시 일원에서 진행된 제14회 경남연합일보 전국생활체육 실버부 대회에서 순천탑골드 70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경남연합일보가 주최하고 창원시 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창원UTD 팀을 포함한 20개 팀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참여 연령은 60대 이상의 전국의 축구 동호인 어른들이다.

60대 11팀, 70대 9개 팀이 각각 열린 경기를 펼쳤다.

경남연합일보배실버축구대회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축구와 같은 생활 스포츠를 통해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고 생활 체육을 손쉽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건 조성에 관심을 갖고 소속팀으로 출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순천탑골드 70대는 창원시 성산구 길음동 28번지 축구장에서 9일 오전 11시 첫 경기를

마산OB를 2대1로 승리하고 2회전에서 함안OB를 1대0으로 격파하고 4강에안착했다.

10일 오전 10시 창원 스포츠센터에서 준경승전에 나선 순천탑골드 70대는 창원다우리팀을 승부차기 4대2로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오후 1시 결승전에선 창원OB를 맞아 2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대회 최고의 선수에게 돌아가는 MVP는 순천탑골드 70대 소속의 원영복 선수가 차지했다.

순천탑골드 70대 위계선(73세) 단장은 "선수 개 개인이 열심히 했다. 연습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면서 "선수들 장점을 미리 파악해 놓다보니 이번 대회에서 그것을 활용해 경기에 임할 수 있어 우승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정영록 순천탑골드 70대(72세) 회장은 "순천 축구 위상을 전국에 떨쳐 모든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오랜만에 우승이라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선수들의 단합된 결과를 이끌어 좋은 팀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순천탑골드 70대는 우승으로 우승기, 트로피, 축구공 등을 수여 받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스코티시 오픈 3위 김주형, 세계랭킹 39위로 도약

김주형(2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선전을 펼쳐 세계랭킹 39위로 뛰어 올랐다.

김주형은 11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 르네상스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합계 5언더파 275타를 기록해 단독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 6명 중 유일하게 컷 통과한 김주형은 PGA 투어 개인 최고 성적을 올렸다.

김주형은 지난주 61위에서 22계단 오른 39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24)는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23위에 자리했다. 이경훈(31)은 42위, 김시우(27)는 69위에 자리했다.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론 스페인은 여전히 세계랭킹 1~3위를 유지했다.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는 7위에서 4위로 올



라셨고,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챔피언 젠더 쇼플러(미국)는 지난주 11위에서 5위로 뛰어 올랐다.

18년만에 9연패 수렁...삼성, 8위도 위태롭다

마운드 붕괴, 9경기 중 6경기서 두 자릿수 실점...구단 최다 연패도 눈앞

삼성 라이온즈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무려 18년 만에 9연패를 당하면서 8위 자리도 위태롭게 됐다.

삼성은 6월 30일 대구 KT 위즈전부터 지난 10일 대구 SSG 랜더스전까지 9경기를 내리 패했다.

연패가 거듭되자 지난 10일 대구 SSG전을 앞두고 1군 코치 4명을 한꺼번에 교체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선수들이 양말을 무릎까지 올려신는 '농군패션'으로 연패 탈출 의지를 다졌지만 무위에 그쳤다.

선발 백정현은 40일 동안 홈런 두 방을 얻어맞으며 6실점으로 무너졌다. 9일 경기에서 10점을 뽑아냈던 타선은 힘을 쓰지 못했다. SSG 선발 투수 오원석이 허리 부상으로 1회 갑작스럽게 교체됐는데도 틈을 파고 들지 못했다.

삼성이 9연패를 당한 것은 2004년 이후 18년만이다. 당시 2004년 5월 5일 대구 현대 유니콘스전부터 5월 16일 잠실 LG 트윈스전까지 10경기에서 1무 9패를 기록했다.

연패 이전에 6위였던 삼성은 8위까지 추락했다. 8위 자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다. 삼성과 9위 NC 다이노스의 격차는 불과 1.5경기다.

삼성 부진의 주요 원인은 마운드다. 최근 9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95점에 달했다. 이 중 6경기에서 10점 이상을 내줬다.

선발, 불펜을 가리지 않고 부진했다. 연패 기간 동안 삼성의 팀 평균자책점은 9.45였다. 같은 기간 10개 팀 중 최하위였다. 6월 30일 이후 팀 평균자책점 9위인 두산 베어스(5.76)와도 격차가 컸다.

연패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외국인 에이스 데이비드 부케넨은 지난달 30일 대구 KT전에서 4이닝 6실점, 이날 7일 대구 LG전에서 3이닝 7실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토종 에이스 원태인은 연패 기간 중 한 차례 등판했



는데 6일 LG전에서 6이닝 동안 홈런 3방을 포함해 6개의 안타를 맞고 5실점했다.

타선이 힘을 났음에도 마운드가 무너져 경기를 내주는 경우도 적잖았다. 지난 6, 7일 LG전에서는 9점을 뺐고도 패배했다. 8, 9일 SSG전에서도 각각 8점, 10점을 냈지만, 투수진이 각 9점, 13점을 내주면서 졌다.

6일 LG전에서는 1회에만 6점을 뽑는 빅이닝을 만들며 8-1까지 앞섰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한채 9-10으로 졌다.

9일 SSG전에서는 2회에만 6점을 올리며 7회까지 9-5로 앞서다 8회 대거 5점을 내주고 10-13으로 졌다. 당시 8회초 2사 1, 2루의 위기에서 마무리 투수 오승환을 조기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오승환은 1⅓이닝 1피안타 3볼넷 3실점으로 무너지며 체면을 구겼다.

오는 14일 전반기가 마무리된다. 삼성으로선 전반기가 끝나기 전까지 연패를 끊는 것이 급선무다.

연패 탈출의 길은 험난하지만 하다. 삼성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상대는 최근 상승세를 자랑 중인 KT 위즈다.

12일 KT전 선발로 나서는 원태인의 어깨가 여러모로 무겁다. 다만 원태인이 6월 29일 KT전에서 6이닝 3피안타(1홈런) 9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다.

뉴스



무등기전국배구대회 하동초·치평초·브이퀵·목포 이로초 '우승'

코로나19로 3년여만에 정상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만에 정상 개최된 광주 무등기 전국배구대회에서 하동초와 치평초, 브이퀵, 목포 이로초가 각각 남녀 어린이부, 여자클럽부, 교직원부 정상상을 차지했다.

무등기배구는 화순 하니옴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34회 무등기 전국배구대회에서 하동초가 어린이 남자부, 치평초가 어린이 여자부, 브이퀵이 여자클럽부, 목포 이로초 교직원팀이 교직원부 우승기를 들어올렸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의 대표 아마추어 배구팀의 축제의

장이었던 무등기전국배구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동안 대회가 축소돼 열렸다. 올해는 3년 만에 교직원부가 부활해 4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어린이부 8개 팀(남 6개·여 2개), 여자클럽부 13개팀, 교직원부 20개팀 등 총 41개팀 6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다.

어린이 남자부에 출전한 하동초는 결승에서 문정초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2개팀이 출전한 어린이 여자부에서는 치평초와 목포하당초가 각각 1승1패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득실에서 치평초가 앞서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여자클럽부에서는 브이퀵이 3년 만에 정상 도전에 나선 광화 또래모아를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누르고 대회 첫 정상에 올랐다.

교직원부에서는 탄탄한 조직력으로 무장한 목포 이로초가 목포용해초를 2대 0으로 제압, 예선부터 본선까지 7전 전승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대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부대행사가 없이 경기만 펼쳐졌다.

한편 이번대회는 무등기배구 협회, 화순군배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슬비기자